

현금결제시 할인폭 커 육계농가 부채만 쌓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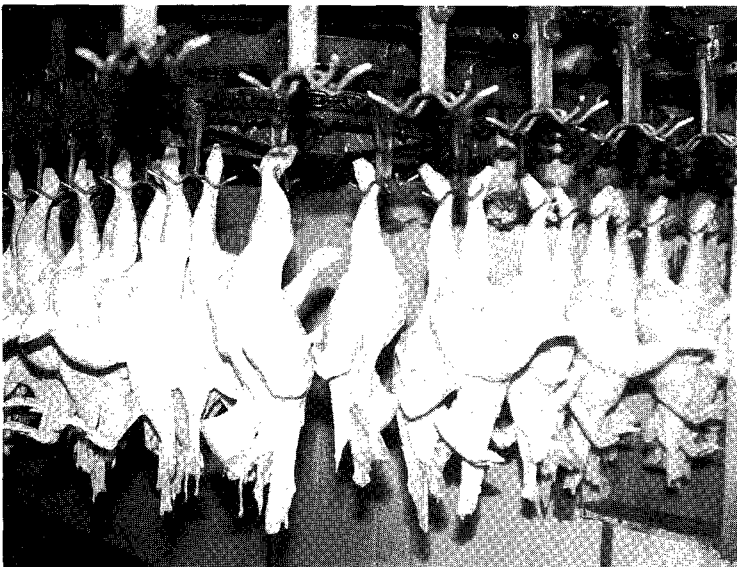
□ 취재/김재서 기자

21 C를 눈앞에 두고 밀려 온 극심한 외화부족 및 금융위기는 육계업에도 예외없이 엄청난 시련과 함께 뼈를 깎는 지구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성장에 이은 소비증가와 개방체제의 출범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구조개선 사업과 각계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는 위기속에 놓여진 것이다.

원료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사료와 유류, 동물약품, 기자재 등 생산요소들은 원화가치 급락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여 사료 50%, 유류 65%, 동물약품 90% 등 믿어지지 않는 생산자재의 가격상승과 원자재 확보난으로 생산자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며 '98년 1월의 육계 생산비는 대략 1,500원/kg대를 넘고 있음에도 출하 시세는 이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육계업자는 생산할수록 빚더미에 쌓여가고 있다.

소비 역시 크게 위축되어 판매량이 예년의 70%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가격은 물가상승과 편승하여 통닭의 경우 25%까지 올랐으



며 서울지역 닭고기 소비자 값은 '98년 1월 8일 기준 3,000/kg원에서 3,200원/kg으로 7%가 인상되어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긴박한 어려움 속에서 관련분야 어느 곳 하나 숨통이 트이는 곳이 없고 생존을 위해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자칫 상호간의 불이익만 안겨주는 일을 되풀이 하면서 도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농가의 직접적인 수입원인 육계출하시 대금이 어떻게 결제가 이루어지는가를 조사하였다. 조사시기는 '98. 1. 8~1. 19였고 육계시세는 1,200원/kg이었다.

1. 닭고기 유통

축산물의 유통을 이야기할 때 흔히 '생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 생물이라는 조건은 축산물 유통에 관계되는 많은 당사자들에게 음으로 혹은 양으로 소득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닭의 중량문제, 감량문제, 출하에 따른 비용 등으로 제때에 팔지못하면 오히려 생산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유통체계 역시 냉장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



문에 저장에 따른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닭고기는 판매, 저장, 가공 등 유통단계에서 타 산물에 비하여 복잡하고 까다로운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닭고기는 농가에서 수집반출상 67%, 계열주체 30%, 군납 3%로 반출되어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열화사업이 등장한 이후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시작된 어음 결제의 시발점인 동시에 흐름을 장악해 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2. 육계 시세 결정

육계시세의 경우 육계유통협의회에서 시장원리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한 후 제시하

고 있으나 과잉생산이 될 경우에는 이중시세가 형성되어 생산자에게 부담을 가져오고 있다. 또한 육계유통협의회 시세는 여러지역의 시세를 평균하여 시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시시세보다 높은지역의 값은 보호되기 어려운 반면 지역적으로 공급량이 많거나 지역시세가 하락세일 경우 다운폭이 커져 시세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취약점을 지니고도 있다.

3. 농가 닭출하 실태

1) 일반사육농장

-거래하는 유통이나 상인의 자금능력과 지역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결제방법은 주로 현금인 것으로 나타났는

표1. 일반사육농가 결제시기와 방법

구분 유동	결제방법	기간(결제시기·일)		DC(원)	수수료 (원)	현금결제시 DC(원)
		IMF전	IMF후			
1	현금	15	7	100	10	100~200
2	"	15	15	100	20	50~100
3	"	15	10	100	10	50~100
4	"	30	20~15	×	10	100
5	"	30	30	100	10	100
6	어음/현금	30	30	50	10	50~100
7	"	60	45	×	10	100
8	"	7	7	100	20	100
9	"	60	45	100	10	100
10	"	45	30	×	×	100

표2. 계열사육농가 결제시기와 방법

구분 계열업체	결제 방법	기간 (일)	IMF이후의 변화 (예정 포함)
1	현금	90	수당 유류비 60%, 약품비 20%인상
2	"	30	수당 유류비 30%인상, 사료인상을 유동지원
3	"	60	수당 유류비 50%인상, 결제기간 단축, 사료농가구매
4	"	30	수당 유류비 50%인상
5	"	60	수당 유류비 50%인상
6	어음	90	수당 유류비 50%인상, 성과급 보완
7	어음	90	수당 유류비 50%인상
8	현금/어음	15	수당 유류비 30%인상
9	"	60	수당 유류비 50%인상
10	"	90	수당 유류비 60%인상

데 어음결제는 대개 유통업자가 계열업체에게 납품을 하면서 받은 것을 되돌리는 경우로 나타났다. DC쪽은 평균 100원이었으며 수수료는 10~20원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결제시기의 경우 현금은 3주, 어음은 평균 45일의 기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금거래시

DC가에서 약 50~100원의 하락을 보였는데 이는 소비감소와 물량체화가 주원인으로 유통업자의 자금운용력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금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역별로 소수의 유통 또는 상인이 부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여기에 관계된 육계업자의 경우 피해를 가져올수 있어 앞으로 자금난이 한층 가중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약사육농장

계약사육농장은 계열주체의 자금압박에 의한 경영난이 더욱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어 예년보다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 현금결제의 경우 출하후 15~90일까지의 지급시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계열주체의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이 미뤄지기 때문이다. 어음은 결제시기가 출하후 60~90일로써 그나마 약속대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극히 드물었고 최악의 경우 150일까지 결제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그 심각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 대부분의 계열주체에서 '98년 1월 이후 불황타개책을 모색하고 농가의 고통을 흡수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사육농가 보호와 육계계열업체의 사육수수료 지연 등 극심한 자금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긴급운영자금 389억을 지원키로 결정, 일단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

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3) 현금과 어음결제 차이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농장의 실제 수취가는 시세에서 지역과 상황에 따라 DC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음 거래시 지급시기가 출하 후 2개월일 때 출하가에 대한 2개월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현금거래시에는 농가가 2개월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

4. IMF 이후의 변화

변화의 가장 큰 직접적인 요인은 생산비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사료값의 현금결제로서 그 파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비의 경우 '97년 12월 이후 평균 50%가 올라 농가의 충격은 물론, 현금구입으로 사육농가는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사료회사의 경우에도 환율인상에 대한 충분할 만큼의 사료비 인상을 할 수 없어 엄청난 환차손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구제금융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첫째로, 일반사육농가의 경우 닭값 현금 결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

대가 형성되어 점차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가의 입장에서는 설상가상으로 과잉생산과 소비격감으로 생산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출하를 하여 교육지책으로 차입금 이자를 주며 현금을 마련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막대한 출혈에도 불구하고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가운데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 두 번째로는 유류비 폭등에 대한 방안으로 계열주체에서 평균 55~60%의 유류비 인상을 적용했거나 실시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사육수수료를 제때에 주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러한 인상분이 언제 사육농가에게 혜택으로 돌아갈지는 의문시되는 가운데 육계농가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5. 육계값 안정화

'97년 7월 1부터 시작된 시장 전면개방의 파고를 넘기도 전에 육계농가는 또다시 구제금융속에서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육계업계는 소비수준을 무

시한 과잉생산, 육계업계 일각의 무제한적 차입경영과 무모한 외형확장, 고비용 저효율의 유통체계 등 많은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육계 관련 분야 각각에서 저마다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생산농가 들은 지척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육계값의 불안정은 농가로 하여금 생산활동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지출은 현금인 반면 수입은 어음내지는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출하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농장은 최악의 자금압박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생산자에게 유리한 결제방법이 꼭 현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이 생산자가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루빨리 육계값의 안정화와 결제의 현금화가 요구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을 소비수준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비정상적인 금융거래관행을 고치려는 노력과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각 지역 생산자 단체에 의한 유통협의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계**